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내油價인하등 종합물가안정대책은 새 정부가 앞으로의 경제운용에서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최근의 물가오름세가 심상치 않고,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둘

국내油價인하의 배경과 파급효과

경우 경제에 미칠 타격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82년 이후 수년동안 계속 안정세를 유지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튀기 시작한 물가는 올들어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지난 2개월동안 도매물가가 1.2%, 소비자물가가 2.2%나 올랐다. 이런 추세로 나갈 경우 올연말까지 당초 물가억제선의 2배가까운 도매 4~5%, 소비자 7~8%선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2월에 이어 올해 내내 물가를 위협할 불안요인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 국제수지흑자폭의 확대로 총통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해외부문에서만 매달 1조원정도가 늘어나 총통화증가율은 지난해 12월 22.5%(平殘기준)에 이어 1월에 19.8%, 2월에는 19.2%로 계속 연간억제목표선인 18%를 크게 웃돌았다.

또 앞으로 예상되는 노사분규와 이에 따른 임금인상도 물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지난해 노사분규에 따른 임금인상률 17.2% 중 5.6% 정도의 영향이 올해로 넘어와 올해 인상폭이 10%만 되더라도 임금인상에 따른 제품가격인상요인이 4.2%나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국내油價인하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全方位대응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국내油價인하배경에 대해 「지난해 10월 油價조정 이후 국제원유가격의 안정추세와 환율하락효과를 그동안 석유사업기금의 조정을 통해 흡수하여 왔으나, 최근 물가불안요인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早期에 흡수함으로써 물가안정기조를 도모하고, 그동안의 환율하락효과를 소비자에게 환원하여 소비자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환율 하락으로 타

金 乾 洽
(本誌 편집인)

石油製品 소비자가격 비교

(단위: \$ / B)

油 種		國 別	韓 國 1988. 3	日 本 1987. 12	台 灣 1988. 3	프랑스 1987. 12	西 獨 1987. 12	美 國 1987. 12
보 통 휘 발 유	가 격		97.2	144.4	88.8	139.6	97.2	40.7
	지 수		100	149	91	144	100	42
			(100)	(134)	(83)	(130)	(91)	(38)
燈 油	가 격		40.5	58.8	61.1	—	—	—
	지 수		100	145	151			
			(100)	(131)	(136)			
輕 油(低硫黃)	가 격		39.4	92.8	58.3	98.5	95.2	46.6
	지 수		100	236	148	250	242	118
			(100)	(212)	(133)	(225)	(217)	(106)
B - C 油(低硫黃)	가 격		24.2	32.5	25.3	23.6	21.8	15.7
	지 수		100	134	105	98	90	65
			(100)	(118)	(92)	(86)	(79)	(57)
L P G (\$ / 톤)	가 격		534	1,847	349 ²⁾	—	—	154
	지 수		100	346	65			29
			(100)	(290)	(55)			(24)
비 고 (1 \$ =)			762.2 원	123.3 円	28.63 NT \$	5.34 F. Fr	1.57 DM	

註: 1) ()는 중전가격대비 지수임. 2) 유통수수료 제외 가격임.

油價 10% 인하시 비용경감 효과

(단위: 억원, %)

산 업	호 과	생 산 비 (A)	연 료 비 (B)	연료비 비중 (B / A)	추정경감액 (C)	생산비경감률 (C / A)
계 조 업		502,963	13,457	2.68	1,345.7	0.27
자 동 차		21,955	166	0.75	16.6	0.08
전 기·전 자		52,484	388	0.74	38.8	0.07
기 계		17,937	153	0.86	15.3	0.09
정 밀 기 계		3,711	22	0.59	2.2	0.06
조 선		20,243	33	0.16	3.3	0.02
화 학		136,343	3,192	2.34	319.2	0.23
철 강		39,877	1,192	2.99	119.2	0.30
비 철 금 속		8,970	295	3.29	29.5	0.33
조 립 금 속		11,608	227	1.95	22.7	0.19
섬 유		47,262	2,024	4.28	202.4	0.43
의 복		16,054	171	1.07	17.1	0.11
신 발		2,802	24	0.86	2.4	0.09
목 재		8,624	93	1.07	9.3	0.11
제 지		13,509	767	5.68	76.7	0.57
인 쇠·출 판		5,380	48	0.90	4.8	0.09
음 식 료		46,231	207	2.61	120.7	0.26

註: 1) 연료비=전력비 제외, 원료유 제외 2) 생산비 경감률=(연료비 / 생산비)×0.1

〈資料〉대우경제연구소 '유가 및 전력요금 인하의 산업별 영향분석' 87. 10

油價 10% 인하시 매출액 경상이익률 변화

(단위: %, %포인트)

효과 산 업	매 출 액 경상이익률 (1986)	유가인하시 매출액경상 이익률변화	유가인하후 매 출 액 경상이익률
제 조 업	3.60	0.18	3.78
자 동 차	4.00	0.05	4.05
전 기 · 전 자	3.90	0.05	3.95
기 계	0.80	0.05	0.85
정 밀 기 계	3.60	0.04	3.64
조 선	-3.10	0.01	-3.09
화 학	4.80	0.17	4.97
철 강	5.40	0.21	5.61
비 철 금 속	3.20	0.25	3.45
조 립 금 속	5.30	0.08	5.38
섬 유	4.70	0.27	4.97
의 복	3.60	0.06	3.66
신 발	2.50	0.05	2.55
목 재	-0.30	0.07	-0.23
제 지	2.80	0.40	3.20
인쇄 · 출판	5.40	0.04	5.44
음 식 료	2.50	0.19	2.69

註: 매출액 경상이익률 변화 = (연료비/매출액) × 0.1
 <資料> 대우경제연구소 '유가 및 전력요금 인하의
 산업별 영향분석' 1987. 10

격받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국내油價인하로 국내석유제품가격은 주요경쟁국인 日本이나 臺灣등에 비해 더욱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휘발유는 100%의 특별소비세 부과로 高價이지만, 산업용 연료인 B-C油는 日本보다 34%, 臺灣보다는 5%가 싸며, 輕油는 日本보다 136%, 臺灣보다 48%가 저렴해졌고, 燈油는 日本보다 45%, 臺灣보다 51%가 싸졌다. 결국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주요경쟁국에 비해 훨씬 값싼 기름을 쓰게 된 셈이다.

소비부문별 부담경감효과를 보면, 산업부문 1천6백61억원, 수송부문 1천6백6억원, 가정·상업부문 6백51억원 등 연간 총 4천6백82억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조업의 총원가중 석유제품의 직접투입비중은 1~25%로 이번 B-C油가격 11.9%의 인하에 따른 제조업의 원가절감효과(간접파급효과 제외)는 0.1~3.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가절감효과를 업종별로 보면, 기초화학이 3.0%로 가장 높고, 製紙와 비철금속이 각각 0.35%, 합성수지 0.3%, 철강 0.26%, 섬유 0.18%, 식료품 0.15%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油價인하에 따른 물가인하효과도 도매물가 0.72%, 소비자 물가 0.09%의 직접효과와 파급효과를 포함할 경우, 도매물가 2.74%, 소비자물가 0.17%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8.0%, 경상수지흑자 7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은 도매 3%, 소비자 5%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의 油價 및 전력요금인하는 기업의 원가절감에 크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물가안정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말로하는 절약보다

한등끼는 손길먼저